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6 Serial No.95 _ 2012. 12

갈등의 영역

- 실내디자인의 지식체계와 프로페션의 건강, 안전, 복지 에토스와의 갈등 -

Contested terrain

- Conflicts between BOK(body of knowledge) of interior design and HSW(health, safety, welfare) ethos of profession -

Author 김덕수 Kim, Duk-Su / 정회원, 국립한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e endowed privilege to an established profession acts as an important motivation related to professionalization of occupations. The established profession enjoys cognitive, legal, and economic privile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fessionalization process of interior design. Specifically, the study evaluates the suitability of the body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ethos(i.e., protection of citizen's health, safety, and welfare), while analyzing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aims at proposing a reference point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interior design. Utilized data include research paper, court sentencing, and reports published by related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3E's are a means of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while separating interior design from interior decorating. In addition, there is no evidence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HSW. Rather, it increases service costs and restricts the job opportunities. When the public is not persuaded, the argument related to the necessity of license for the protecting citizen's HSW can be consumed as a mere rhetoric, concealing intentions for formulating a cartel.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terior design may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body of knowledge, which are specific to interior design.

Keywords 실내디자인, 프로페션화
Interior Design, Professional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프로페션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직종이 추구하는 프로페션화에 직접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성립된 프로페션은 인식적,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 직종의 프로페션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프로페션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 해당 업역에 대한 시장 독점권을 획득하여 향유하는 특권의 근원 그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기능의 관점, 권력의 관점, 경제적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조직 사회학적 시각으로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식적 및 제도적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직종의 프로페션화 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거친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페션의 구조적 체계완비와 관할권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체계와 프로페션의 선언된 사회적 기능1)의 적합성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프로페션화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참조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 및 디자인 분야의 유일한 프로페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축의 프로페션화 과정과 비교하여 미국 실내 디자인 프로페션화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제약을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미국의 건축 프로페션과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분석의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복수 사례연구가 된다. 사용되는 연구자료는 미국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와 연계되어 발표된 연구논문, 법원판결문, 전문단체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사용한다.

1) HSW로 통칭되는 프로페셔널 에토스로서, 시민들에게 건강(health), 안전(safety), 복지(welfare)를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의 보유와 운용은 건축과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선언된 사회적 기능이다.

2. 프로페션의 정의, 특성, 구조

직종의 프로페션화(Professionalization)는 어떤 사회적 기능 조직이 업무 영역을 설정하고, 구성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준과 업무 수행방식을 결정하고, 해당 프로페션 구성원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구성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그 권리를 교섭해가는 과정이다.[2] 프로페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의 설립; (2) 각 프로페션에 특징적인 기술의 보유와 추상적 지식체계의 발전; (3) 구성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단체의 형성; (4) 윤리 규정의 제정; 그리고 (5) 대중의 선을 위한 서비스 수행[3]. 프로페션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프로페션은 해당 업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지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구체적 및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전문지식과 결정이 권위와 신망을 가지고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직종으로 정의된다[4]. 따라서 어떤 직종이 프로페션의 지위를 획득하면 그 직종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된 지식체계를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배타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5]

프로페션의 성립에 관한 기존의 사회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관점에 의해 대별된다. 첫째, 기능주의 관점을 통한 연구는 사회에 순기능 하는 속성을 나열함에 의해 프로페션을 정의한다.[6] 둘째, 권력의 관점은 어떤 직종이 프로페션으로의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능력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직업으로 정의한다.[7] 셋째, 과정적 접근은 프로페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에 의해 프로페션을 분석한다.[8] 마지막으로, 프로페션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유시장(Free Market) 전통과 프로페션 성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프로페션의 역할을 연구한다.[9]

프로페션의 성립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문지식의 권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프로페션 성립의 전제조건은 지식의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10] 구체적으로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이 주장하는 프로페션의 사회적 순기능은 전문지식의 보유에 의해 가능해지며, 권력의 접근에서는 프로페션의 속성중의 하나로 전문지식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의 독점적 사용을 통해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투쟁을 강조한다. 과정적 접근 역시 어떤 직종의 프로페션화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사회적 설득 작업에 미치는 전문지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적 접근은 전문지식의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이 야기하는 자유 시장경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프로페션을 분석한다.

3. 프로페션들 간의 갈등

전문 지식의 보유가 프로페션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프로페션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권력이론(Power Theory)은 프로페션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당성 획득과 연계된 갈등을 세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다. 첫째,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지식의 불완전성은 어떤 직업이 완전한 프로페션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직종들은 활동 영역의 제로 섬(Zero-Sum)으로 특징되는 제약 때문에 갈등한다. 각 직종은 상대편이 갖는 만큼 업역이 축소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및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

2) Boreham, P., Indetermination: professional knowledge, organization and control. The Sociological Review Vol.31 No.4, 1983, pp.693-718

3) Hugman, R., Professionalization in social work: the challenge of diversity,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39 No.2, 1996, pp.131-147; Wilensky, H.L.,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0 No.2, 1964, pp.137-158

4) Abbott, T.A., The System of Profess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Larson, M.S.,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5) Child J. & Fulk, J., Maintenance of occupational control. Work and Occupations Vol.9 No.2, 1982, pp.115-192

6) Carr-Saunders, A.M., Profession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HM Vollmen & D Mills(Eds.), Profession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Hall, 1928; Goode, W.J.,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5, 1960; Greenwood, E.,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Vol.2 No.3, 1957, pp.45-55

7) Child J. & Fulk, J., op. cit., 1982, pp.115-192; Freidson, E., Profession of Medicine. Harper & Row, 1970; Jamous, J. & Peloille, B., Changes in the French university-hospital system. In JA Jackson(Ed.), Professions and Profession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111-152

8) Forsyth, P.B., Danisiewicz, T.J., Toward a theory of professionalization. Work and Occupations Vol.12 No.1, 1985, pp.59-76; Roth, J.A., Professionalism: the sociologist's decoy.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Vol.1 No.1, 1974, pp.6-23; Wilensky, H.L., op. cit., pp.137-158

9) Begun, J.W., Economic and sociological approaches to professionalism. Work and Occupations Vol.13 No.1, 1986, pp.113-129; Dietrich, M. & Roberts, J., Beyond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ism. In J Broadbent, M Dietrich, J Roberts(Eds.), The End of Professions?, Routledge, 1997; Matthews, R.C.O.,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ethics. The Economic Journal, Vol.101, 1991

10) Freidson, E., Professionalism Reborn: Theory, Prophecy and Policy, Cambridge, MA: Polity, 1994

개되는 활동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그들의 직능 단체, 라이선스, 전문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인증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 설명은, 한 프로페션이 선점한 자신의 활동영역에 다른 혹은 새로운 프로페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해당 프로페션의 활동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 그리고 법적인 혹은 행정적 영역 내에서도 발생한다. 건축의 경우, 그간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집단에 대한 가장 우세한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마스터 빌더로서의 건축가였다. 현재 건축 산업의 담당주체들을 보면, 건축 산업은 건축 디자인, 실내디자인, 조경, 토목, 시공관리(CM) 등 다양한 전문 직능단체들의 혼성물 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852년 토목 엔지니어를 위한 직능 단체가 가장 먼저 구성되어 졌고, 실내디자이너를 위한 직능 단체는 가장 늦은 1975년에 구성되어 졌다. 건축가를 위한 대표적 직능 단체인 미국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시원은 1857년이다. 이러한 직능 단체들의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래전 성립된 프로페션은 시장 독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고, 새로 형성된 직종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프로페션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생존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AIA는 실내디자인을 건축의 관할권에 속하는 분야로 취급하여, 실내디자인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자는 실내디자이너들의 주장에 반대해 왔었다. 건축가에 의해 내세워진 반대 논리는 건축에서 대중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Health, Safety, Welfare: 이하 HSW로 통칭)는 건축가의 독점적 책임 하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975년에 설립된 미국실내디자이너협회 (ASID: American Society of Iterior Designers)는 실내디자인의 정체성을 대중의 HSW를 책임지는 공간을 계획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페션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침내 1982년 알라바마에서 최초의 Title Act[11]가 통과된 이후 1994년 플로리다, 1995년 네바다, 1999년 루이지아나, 그리고 2001년 알바바마에서 Practice Act[12]가 시행되어 실내디자인 업무의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4. 건축과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구조분석

4.1. 건축 프로페션의 구조

건축은 가장 오래된 프로페션들 중의 하나로, 건축가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기원전 3000년 경 이집트에서 발견된다.[13] 역사적으로 건축은 아마추어와 장인들뿐만이 아니라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수학적(기하학적) 공식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16세기 말경 인정된 전문 직업이 되었다.[14] 중세까지 보편적 건축행위 주체는 메이슨(Mason)이었고,[15] 르네상스 시기에는 다른 예술이나 공예 분야의 종사자들 이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건축가들은 주로 예술가와 학자들이었다[16]. 건축가의 형성은 르네상스 이후 대학의 설립에 의한 전문 교육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문적 교육을 통해 프로페션화 된 건축가의 이미지는 19세기의 창조물이다. 건축의 프로페션화를 실패 사례로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는 주요 구성단체들에 의한 권력의 분권화에 기인하는 프로페션의 공통된 의견의 불일치를 언급한다. 또한 미학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직종인 건축의 지식체계에서 발견되는 주관적 취향에 영향받는 의미의 모호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17]

현재 미국의 건축 프로페션을 구성하는 대표적 단체로는 미국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미국건축대학연합(ACSA: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건축등록원 (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그리고 건축학교육인증원(NAAB: National Accrediation Board)이 있다. 최초의 건축 프로그램은 1865년 MIT에서 제공되었다. 프로페셔날리즘의 중심 이슈 중의 하나인 윤리강령은 1909년 AIA에 의해 제정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건축 프로페션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

11) 실내 디자인 실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registration)이나 자격증(certification)의 수단을 통해 실내 디자이너라는 명칭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

12)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여 실무를 할 수 있게 규제하여 무자격자의 실내 디자인 실무를 통제하는 법

13) Kostof, S., Preface, in S. Kostof, ed., The Architect: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77, pp.v-viii

14) Upton, D., Pattern books and professionalism: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of domestic architecture in America, 1800-1860, Winterthur Portfolio Vol.19 No.2/3, 1984, pp.107-150

15) Crosby, S., Reviews, Speculum, Vol.36, No.3, 1961, pp.469-473; Shelby, L.R., The education of medieval English master masons, Mediaeval Studies Vol.32, 1970, pp.1-26; Harvey, J., The Master Builders: Architecture in the Middle Ag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16) 피렌체 대성당(1420-1436)을 설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로 꼽히는,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는 금세공인 이었고,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 베르니니(Giovanni Lorenzo Bernini, 1598-1680) 그리고 보로미니(Francesco Borromini, 1599-1667)는 조각가였다.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는 학자였다. 한편 영국 르네상스의 건축가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로부터 유래됐다. 존스(Inigo Jones, 1573-1652)와 밴브러(Sir John Vanbrugh, 1664-1726)는 연극, 복식 그리고 무대 장치 디자이너였다. 렌(Sir Christopher Wren, 1632-1723)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다.

17) Bickford, A., Professional architecture and professional failure: structure and rhetoric in the AIA's first centu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1995

니라 대중의 HSW(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선언을 하였다. 건축에 관련된 미국 최초의 잡지인 Architect's and Mechanic's Journal(New York, 1859-1861)이 1859년에 출간된 이후, 건축 출판물은 건축을 프로페션으로 조직하기 위한 주요 홍보수단이 되어 왔다.[18]

4.2. 미국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구조

실내디자인은 다른 그룹으로부터의 도전과 경계적 사회문화적 위상에 의해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존재와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실내디자인의 업역은 건축가, 엔지니어, 빌더, 목수, 미장업자, 텍스타일 디자이너, 미술가와 가구 디자이너 등을 포함하는 여러 세부 전문 직능단체들의 그것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프로페션화 추구 과정을 보면, 학제 간 통합보다는 세부 직능의 구체성을 강조하여 NKBA(National Kitchen & Bath Association) 같은 강력한 세부 전문단체가 득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실내디자인 프로페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으로 1995년 실내디자인 연관단체 통합계획(1995 Hypothesis)과 같은 다양한 전문단체의 형성과 합병이 발견된다.[19] 또한 역사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위계에서 여성과 남성, 장식과 구조, 취향(Taste)과 기술(Skill), 그리고 실내와 건축 등으로 대비되는 경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내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전문직능단체가 늦게 성립된 신생 프로페션이다. 미국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미국실내디자이너협회(ASID: Americ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국제실내디자인협회(IIDA: International Interior Design Association), 실내디자인교육자협의회(IDEC: Interior Design Educators Council), 실내디자인교육인증원(CIDA: Council for Interior Design Accreditation), 미국실내디자인자격인증원(NCIDQ: National Council for Interior Design Qualification) 등이 있다.

대학에 설립된 공식교육과정은 1924년 뉴욕실내장식학교(New York School of Interior Decoration)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실내디자인의 윤리강령[20]은 1961년 발견된다.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은 다수의 회원을 갖고 있는 대표적 두 단체인 ASID와 IIDA의 윤리강령(Code and Professional Conduct)을 활용하고 있다. ASID는 1976년 윤리강령(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을 제정하였고[21], IIDA도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Conduct)을 운용하고 있다. AIID[22]는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미학적 실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프로페셔널의 이미지를 함양하기 위해 1931년 공식적 정의를 내렸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훈련과 교육에 의해 인테리어와 가구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예술작업과 공예작업을 감독하는 직종"으로 정의하였다. AIID의 설립 멤버이자 1941년 AID 5대 회장으로 선출된 낸시 맥클랜드(Nanvy V. McClelland)는 취향과 HSW 간의 정체성 갈등은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여 실내장식(후에 프로페션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내디자인으로 구체화 됨)을 건축과 같은 다른 프로페션과 분리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실내디자인이 단지 가구나 색채의 선정과 같은 취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된다면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시민의 HSW를 보호하는 실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프로페션의 지위에 오를 수 없다. 따라서 프로페션화를 위한 사회적 교섭 전략으로 실내디자인의 강조점을 취향보다는 HSW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에 두고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로페션화의 구조적 요건들을 정비해 나갔다.[23]

1975년에 북미 유일의 실내디자인 연구학술지인 실내디자인교육연구지(JIDER: Journal of Interior Design Education and Research)가 발간되어 업역에 특징적인 전문지식의 보유 및 지속적 개발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이 후 실내디자인저널(JID: Journal of Interior Design)

18) Woods, M.N., The first American architectural journals: the profession's vo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48 No.6, 1989

19) Harwood, B., IDEC's history: important milestones 1963-1978,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5 No.2, 2010, pp.1-20; CFID (Council of Federal Interior Designers); 실내 디자인 분야는 IBD(Institute of Business Designers); IDEC(Interior Design Educators Counicil); ISID(International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ISP(Institute of Store Planners); ASID(American Society of Interior Designers); NCIDQ(National Council for Interior Design Qualification); NKBA(The National Kitchen and Bath Association) 등 다양한 세부분야에 특화된 단체들로 구성되어있다; 1995년을 기한으로 하는 1995 Hypothesis라고 명명된 실내디자인 연관단체 통합계획이 있었다. CFID, IBD, IDEC, ISID, 그리고 ISP의 합병계획이었으나 IDS와 ASID가 미참여 하여 3개 단체만이 통합하게 되었다.

20) AID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

21) http://ethics.iit.edu/ecodes/node/5158

22) 1931년에 설립된 미국실내장식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Interior Decorators)로 1936년에 AID(American Institute of Decorators)로 개명하였다. 1957년에 설립된 NSID(National Institute of Interior Designers)와 합병하여 1975년 ASID를 형성하였다.

23) Lees-Maffei, G., Introduction: professionalization as a focus in interior design history,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21, No.1, 2008, p.1.; Pable, J., Interior design identity in the crossfire: a call for renewed balance in subjective and objective ways of knowing,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4 No.2, 2009, p.xx; May, B., Nancy Vincent McClelland (1877-1959): professionalizing interior decorati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21 No.1, 2008, pp.59-74

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미국 건축과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구조적 유사성은 다음의 <표 1>로 요약된다.

<표 1> 미국 건축과 실내디자인 프로페션의 구조

	건축	실내디자인
교육기관의 설립	1865, MIT	1924년, New York School of Interior Decoration
지식체계	1859, Architect's and Mechanic's Journal	1975, JIDER(JID로 개명)
전문단체	AIA(1857); ACSA(1912); NCARB(1919); NAAB(1940)	1931, 최초의 단체 AIID설립; 1963, IDEC; 1971, FIDER(2006, CIDA로 개명); 1972, NCIDQ; 1975, ASID
자격등록법	1897년 일리노이즈(Illinois)에서부터 시행	1982년 알라바마(Alabama) Title Act, 2001년 Practice Act 시행
윤리강령	1909년 제정	1961년 'AID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
역할	Health, Safety, Welfare 제공	Health, Safety, Welfare 제공

5. 실내디자인 프로페션화의 갈등

5.1. 실내디자인의 지식체계와 HSW에 대한 논쟁: 3E's와 3I's

실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의미하는 3E's는 교육(Education), 실무경험(Experience), 면허시험(Examination)을 의미한다. ASID는 실내디자이너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의 HSW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를 찬성하는 측은 3E's로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실내디자인 전문가만이 부적절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낙상이나 화재에 의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는 실내 공간 계획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실내 마감재료, 가구, 장비 등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HSW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4] 첫 번째 E는 CIDA가 인증하는 교육프로그램[25]의 이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E는 실무경험을 의미한다. NCIDQ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마지막 E는 NCIDQ의 면허시험을 의미한다. NCIDQ 시험의 목적은 실내디자인 실무를 위해 필요한 표준 역량을 검증하여 시민의 HSW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3E's의 과정을 통과한 실내디자이너와 달리 실내장식가는 시민의 HSW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페션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를 추구하는 측의 입장은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의 구별은 시민의 HSW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3E's의 유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22개 주는 3E's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내디자인 실무를 규제하고 있다.[26]

반면에 실내디자인 실무의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등록이나 라이선스의 수단으로 자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HSW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의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내디자이너의 자격은 NCIDQ 시험의 통과보다는 교양인의 보편적 소양인 3I's(Intelligence, Imagination, Integrity)에 관련된다고 주장한다.[27]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실내디자인 실무를 규제하지 않아서 대중에게 해를 입혔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내디자인 규제는 HSW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거래개선협회(BBB: Better Business Bureau) 자료에 의하면 1907년 이래 미국 실내디자이너에게 제기된 총 소송의 건수는 52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송의 논점은 HSW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3개 주의 실내디자인 규제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들의 95%는 실내디자인의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내디자이너의 라이선스 여부 등에 관한 고발성 민원이었다.[28] 만약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처럼 3E's의 유무와 제공되는 실내디자인 서비스의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3E's를 보유하지 않은 실내장식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시민들의 HSW는 지속적으로 침해당해왔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HSW 침해와 관련된 디자인 오류나 서비스 품질 불량에 관한 소송의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논리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가 빈약하다. 따라서 시민의 HSW를 보호하기 위해 라이선스 미보유자의 실무 행위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반론에 노출되어 있으며, 3E's보다는 3I's를 실내디자인 실무를 위한 자격기준으로 주장하는 반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반론의 근저에는 AIA나 IJ(Institute for Justice)의 입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프로페션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내세운 3E's 중의 첫 번째 E인 지식체계와 HSW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24) Martin, C.S., Rebuttal of the report by the institute for justice's designing cartels: how industry insiders cut out competition, www.idec.org/pdf/Martin.Rebuttal.pdf, November 2007, p.20, pp. 29-32

25) 현재 북미에 161개의 CIDA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26) Carpenter II, D.M., Designing cartels: how industry insiders cut out competition, The Institute for Justice, 2007, p.4. 3개의 주는 Practice Act에 의해 실무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나머지 주는 Title Act에 의해 명칭 의 사용을 규제함.

27) IDPC, Rebuttal to ASID message guide, www.idpc.info.org, 2008, p.4

28) Carpenter II, D.M. & Ross, J.K., Designing cartels through censorship, Regulation, Summer 2008, p.17

대한 회의적 시각이 위치한다. 실내디자인은 고유한 전문적 지식 영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프로페션이 될 수 없다[29]는 AIA나 IJ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인증기준을 분석하여 실내디자인에 속하는 특징적 지식 영역을 도출한 연구결과에서도, HSW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실내디자인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효과적으로 예시하지 못하고 있다. CIDA와 NAAB의 학생수행평가기준(SPC: Student Performance Criteria)의 내용을 분석하여 80개의 항목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3개의 지식 영역이 실내디자인에 전문화 된 것이고 1개의 항목이 건축에 전문화 된 내용(i.e., 대지 설계)으로 분류하였으나 분석된 실내디자인에 특징적 지식체계는 사용자의 HSW와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결핍되어 있다[30]. 실내디자인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된 13개의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실내디자인의 특징적 지식체계

실내 디자인의 특징적 SPC
비즈니스, 조직, 그리고 가족구조의 다양성 인식
인체공학 및 인체측정학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
전문조직의 역할과 가치
평생학습의 역할과 가치
실내디자인과 가구에서의 운동과 시대에 관한 지식
예술의 양식 운동과 시대에 관한 지식
색채 원칙, 이론, 시스템의 이해
빛과 색채의 상호작용 및 실내 환경에의 영향 이해
다양한 목적에 맞춰 색채를 선택하고 적용
효율적으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프리젠테이션, 모델 등)에 색채 적용
가구, 기구, 장비를 배치하고 지정할 수 있는 능력
능숙하게 조명기구와 광원을 선택하고 적용
분배 및 시공 시스템과 가구의 인터페이스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이해

실내디자인이 건축과 같은 HSW 보호의 기능을 주장하며 건축과 동일한 관할권 내에 진입하려 할 때, 건축은 이러한 관할권의 유사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실내디자인의 라이선싱과 타이틀 부여를 방해하고 있다. 결국 자격규제법의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유사한 활동 영역에 이미 성립된 건축 프로페션이 내세우는 홍보전략과 유사한 시민의 HSW 보호를 존립 목적으로 하는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 전략은 오히려 실내디자인의 주변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쳐 정체성 확립과 프로페션화를 방해하고 있다.[31]

29) 대부분의 실내 디자인 프로그램은 가정소비학과(Family and Consumer Sciences Departments)에 소속되어 있다; Hegde, A. & Hill, C.,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opinions and perceptions of professional leader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Vol.103 No.1, 2011, p.28

30) Martin, C.S. & Kroelinger, M.D., 2009 accreditation requirements: comparison of CIDA and NAAB,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5 No.2, 2010, pp.18-25

5.2. 사회적 설득의 어려움: 경제적 동인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레토릭의 갈등

1950년대 미국에서 실무를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종은 약 4.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약 20%로 증가하여[32] 프로페션화를 포함하는 직종의 시장통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페션이 향유하는 시장 독점권 확보를 위해 직종 간에서 발생하는 투쟁의 맥락과 궤를 같이하여 실내디자인에서 발생한 프로페션화를 둘러싼 논쟁의 기저에는 시민의 HSW 보호라는 사회적 명분과 상업적 동기 사이의 긴장관계가 발견된다.[33]

ASID는 실내디자인자격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내디자이너들은 장식가(Decorator)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8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 112,000명이 실내디자인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중 약 3%만이 NCIDQ의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은 실내디자인자격법이 명확한 이득 없이 실무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여 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디자인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카르텔(Cartel)을 구축하게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또한 실내장식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려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중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경험적 증거 없이 자격규제를 통해 직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고 있다[34].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라이선스에 의한 시장진입 규제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격증(Certification)과 등록(Registration) 시스템이 제안된다[35]. AIA의 경우에도 특정분야의 설계에 전문화된 건축가들에게 자발적 인증을 통해 타이틀을 부여한다. 의료시설 디자인의 경우, ACHA(American College of Healthcare Architects)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타이틀 여부가 해당분야의 독점적 설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효용은 가능하다.

또한 실내디자인 프로페션화에 대한 주요 반대세력 중의 하나인 AIA의 논리에서 보여 지듯이 실내디자인은 유사한 업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실내장식 및 건

31) Havenhand, L.K., A view from the margin: interior design, Design Issues Vol.20 No.4, 2004, p.34, p.42

32) Kleiner, M.M. op. cit., p.17

33) Less-Maffei, op. cit., p.8

34) Harrington, D.E. & Treber, J., Designed to exclude, Institute of Justice, February 2009, p.15

35) Kleiner, M.M. A license for protection, Regulation Vol.29 No.3, 2006, p.21

축과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논리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즉, 실내디자이너는 건물 사용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적 건물계획, 건물 시스템과 건축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대중의 HSW는 이미 성립된 프로페션인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자격 규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는 중복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36]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 침체에 따른 건축관련 시장의 축소에 의해 실내디자인 시장으로 업역을 확장하는 건축가에 의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실내디자인자격 규제법에 대해 조성되고 있는 반대 여론에 의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37]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규제법인 Practice Act가 2001년 알라바마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반대 측 전문직능단체와 소비자 및 사회단체의 지속적 저항에 노출되어 있다. 시민의 HSW 보호를 위해서는 Title Act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논리에 공감하여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는 소극적 의미의 자격규제법을 시행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로비와 영향력 행사에 의해 Practice Act를 통과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Practice Act에 의한 실내디자인 주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은 결국 관할권의 축소로 보는 AIA와 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이 아니라 자격규제에 의해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3E's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실내디자이너, 그리고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 카르텔의 형성으로 보는 소비자 및 사회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대 측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헌 소송에 의해 결국 2007년 알라바마 대법원은 Practice Act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IJ를 중심으로 주별로 실내디자인 자격규제법의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다.<표 3>

<표 3>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에 대한 주체별 논점들

	전문단체		입법 및 행정 주체	소비자 및 사회단체
	찬성	반대		
관계자	ASID, IIDC	IDPC[38], NKBA[39], NFID[40], AIA, NCARB	주정부 기관	일반시민, NGO, AARP[41], IJ[42], Common Cause[43]
입장	시민의 HSW 보장	시민의 HSW 보장	시민의 HSW 보장	합리적 서비스 소비
관심	시장통제 및 독점	자유시장	HSW 보장 여부	서비스의 질과 가격
중요 항목	타이틀 법, 라이선스 법; 3E's	자유시장의 경쟁시스템에 의한 적자생존; 3I's	라이선스 수수료에 의한 세수 증대, 선거지원과 후원금 지원, 시민의 의견	자율적 공급자 선택권
상대적 영향력	강	중	강	중
영향력의 근원	로비력, 자금, 대학, 회원	헌법(독점방지법); 기존 실내디자인 종사자; 전문단체의 기득권, 시민의 인식	법률 제정권; 행정력; 일출법(Sunrise Laws)[44]	혜택 당사자로서의 인식 및 요구
최선의 협상대안	자격규제의 수용; 점진적 라이선스화	자격규제의 금지; 전문협회에 의한 자발적 자격인증	비자격자에 의한 HSW 침해여부와 자격증제도의 효용에 대한 법적 판단	서비스 품질 향상과 비용 저하
관계	반대측과 적대적	찬성측과 적대적	정부기관으로 중립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면적
논의의 전개과정	1973년 Puerto Rico 최초의 practice act 시행; 1982년 알라바마 Title Act, 2001년 Practice Act	1975년 Goldfarb vs. Virginia 라이선스 반독점법 적용; 2007년 알라바마 대법원 Practice Act 위헌결정; 주별로 소송제기	알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워싱턴 DC, 네바다 등록법 승인; 2007년 알라바마 Practice Act 폐기;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Practice Act와 Title Act의 위헌여부 심의 중	IDPC의 지원에 의한 풀뿌리 운동 전개; AARP의 정치권 압박; IJ의 반대논리 개발 및 출판; 자격규제법 위헌 소송 제기

36) AIA, Interior design issue brief, www.aia.org, August 2011
37) Farrow, M., Can it be true? Interiors Vol.153 No.1, 1994, p.34
38) Interior Design Protection Council, 2008년 플로리다에서 실내 디자이너의 실무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39) National Kitchen & Bath Association, 부엌과 욕실에 특화된 전문단체로 196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5만명의 회원 보유
40)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소규모 독립 사업체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3년 설립된 단체
41)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50세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1958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약 3천 8백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가장 강력한 로비그룹 중의 하나임
42) Institute for Justice,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미국 유일의 자유주의 공익 법률회사
43)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회복과 국민의 요구에 따른 행정개혁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 40만명의 회원 보유
44) 라이선스 부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 (1)무면허 프로페션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해악이 됨; (2)주 면허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히 보호함; 그리고 (3) 다른 수단은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음

6. 논의 및 결론

현실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HSW를 목적으로 하여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프로페션이 공존시키려는 전략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한다. 두 프로페션의 SPC를 분석하여 지식영역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석한 연구내용을 보면 문구상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레토릭(Rhetoric) 외에는 프로페션으로 공존할 만큼 실질적으로 변별력 있는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HSW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의학과 엔지니어링 모

델에서의 과학적 지식이나 법학 모델에서의 규범적 지식에서처럼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규범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 프로페션의 미학적 지식은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범적 혹은 객관적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프로페션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로페션으로 성립되어 있는 건축의 경우도 법학이나 의학에 비교하여 이류 프로페션으로 분류된다. 구성단체들간의 권력의 분권화와 지식속성의 모호성에 의해 실패한 프로페션화 사례로도 언급되는 건축과 유사한 구조와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내디자인 역시 건축의 사례와 유사한 프로페션화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프로페션화는 구조체계의 완비에 의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HSW에 연관된 자신의 고유 업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정립된 보편적 지식체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통합된 프로페션의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설득에 의해 이루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선스는 시장통제를 위한 프로페션의 정량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대중의 가치나 HSW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HSW 보호를 위한 라이선스의 당위성에 집중된 주장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은폐하는 레토릭으로 소비되고, 자신의 독자적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할권 투쟁으로 시장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소모적 갈등관계를 생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를 둘러싼 갈등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프로페션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프로페션화가 실내디자인 실무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부적 합의 도출의 실패는 갈등구조의 주요 동인이었다. 프로페션화를 위해서는 공식적 실내디자인 교육시스템의 인증을 포함하는 3E's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2008년 기준 실내디자인 실무자의 대다수인 97%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프로페션화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설득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프로페션화는 실패하게 된다. 둘째, 실내디자인의 지식체계가 시민의 HSW의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에 성립된 건축과 특징적 차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성립된 건축 프로페션에 의한 관할권 중복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특징적 관할권 설정에 태생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률 시스템으로 보더라도 실내 디자인의 업역과 지식체계는 일출법(Sunrise Law)이 규정하는 라이선스 발급 조건을 충족하여 독점적 시장지배권을 부여받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한 직종의 프로페션화는 프로페션들이 공유하는 구조적 특성의 완비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역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과정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식적 및 제도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구조의 근원적 동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 경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처럼 자발적 인증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실내디자이너라는 의미를 갖는 일정한 타이틀의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적 성공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 방향 설정에 참조될 수 있는 미국 실내디자인의 프로페션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갈등관계를 추적하여 분석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연구의 범위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Abbott, T.A., The System of Professions, The Univerisy of Chicago Press, 1988
2. AIA, Interior design issue brief, www.aia.org, August 2011
3. Begun, J.W., Economic and sociological approaches to professionalism. Work and Occupations Vol.13 No.1, 1986
4. Bickford, A., Professional architecture and professional failure: structure and rhetoric in the AIA's first centu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1995
5. Boreham, P., Indetermination: professional knowledge, organization and control. The Sociological Review Vol.31 No.4, 1983
6. Carpenter II, D.M., Designing cartels: how industry insiders cut out competition, The Institute for Justice, 2007
7. Carpenter II, D.M. & Ross, J.K., Designing cartels through censorship, Regulation, Summer 2008
8. Carr-Saunders, A.M., Profession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HM Vollmen & D Mills(Eds.), Profession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Hall, 1928
9. Child J. & Fulk, J., Maintenance of occupational control. Work and Occupations vol.9 No.2, 1982
10. Crosby, S., Reviews, Speculum Vol.36 No.3, 1961
11. Dietrich, M. & Roberts, J., Beyond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ism. In J Broadbent, M Dietrich, J Roberts(Eds.), The End of Professions?, Routledge, 1997
12. Farrow, M., Can it be true? Interiors, Vol.153 No.1, 1994
13. Forsyth, P.B., Danisiewicz, T.J., Toward a theory of professionalization. Work and Occupations Vol.12 No.1, 1985
14. Freidson, E., Profession of Medicine. Harper & Row, 1970
15. Freidson, E., Professionalism Reborn: Theory, Prophecy and Policy, Cambridge, MA: Polity, 1994
16. Goode, W.J.,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5, 1960
17. Greenwood, E.,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Vol.2, 1957
18. Harrington, D.E. & Treber, J., Designed to exclude, Institute for Justice, February 2009
19. Harvey, J., The Master Builders: Architecture in the Middle Ag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20. Harwood, B., IDEC's history: important milestones 1963-1978,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5 No.2, 2010

21. Havenhand, L.K., A view from the margin: interior design, Design Issues Vol.20 No.4, 2004
22. Hegde, A. & Hill, C., Graduate education in interior design: opinions and perceptions of professional leader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Vol.103 No.1, 2011
23. Hugman, R., Professionalization in social work: the challenge of diversity,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9 No.2, 1996
24. IDPC, Rebuttal to ASID message guide, www.idpc.info.org, May 2008
25. Jamous, J., Peloille, B., Changes in the French university-hospital system. In JA Jackson(Ed.), Professions and Profession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26. Kleiner, M.M. A license for protection, Regulation, Vol.29, No.3, 2006
27. Kostof, S., Preface, in S. Kostof, ed., The Architect: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77
28. Larson, M.S.,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29. Lees-Maffei, G., Introduction: professionalization as a focus in interior design history,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21, No.1, 2008
30. Martin, C.S. & Kroelinger, M.D., 2009 accreditation requirements: comparison of CIDA and NAAB,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5 No.2, 2010
31. Martin, C.S., Rebuttal of the report by the institute for justice's designing cartels: how industry insiders cut out competition, www.idec.org/pdf/Martin.Rebuttal.pdf, November 2007
32. Matthews, R.C.O.,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ethics. The Economic Journal Vol.101, 1991
33. May, B., Nancy Vincent McClelland (1877-1959): professionalizing interior decoratio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21 No.1, 2008
34. Pable, J., Interior design identity in the crossfire: a call for renewed balance in subjective and objective ways of knowing,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34 No.2, 2009
35. Roth, J.A., Professionalism: the sociologist's decoy.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Vol.1, 1974
36. Shelby, L.R., The education of medieval English master masons, Mediaeval Studies Vol.32, 1970
37. Upton, D., Pattern books and professionalism: aspects of the transformation of domestic architecture in America, 1800-1860, Winterthur Portfolio Vol.19 No.2/3, 1984
38. Wilensky, H.L.,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0, 1964
39. Woods, M.N., The first American architectural journals: the profession's vo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Vol.48 No.6, 1989

[논문접수 : 2012. 10. 31]
[1차 심사 : 2012. 11. 17]
[2차 심사 : 2012. 11. 27]
[게재확정 : 2012. 12. 10]